

자기소개서 글쓰기의 이해

최 승 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대학별고사 연구팀장·정책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경기진학지도협의회 대외협력국장

EBSi 적성고사 국어, 자기소개서 강사

한겨레신문 '최승후 교사의 진로·진학 마중물' 연재

『자기소개서 전략집, 자기야』, 도서출판 대가

『딱이야, 적성』, 넥젠북스

[1] 자기소개서 역할

□ 평가자는 “서류로써 지원자를 이해합니다.”

- 학생부: 다수의 교사가 작성한 누적 기록
- 추천서: 지원자를 잘 아는 교사가 작성
- 자소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기록

□ 자소서는 제출 서류 중 유일하게 지원자의 생각과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서류

□ 자소서는 학생부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활동의 과정과 의미를 기록할 수 있는 서류

□ 자소서는 ‘개별화, ‘구체화’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글

□ 자소서는 평가자 입장에서 남이 아닌 자기를 소개하는 글

학생부를 보완하는 자소서와 면접

학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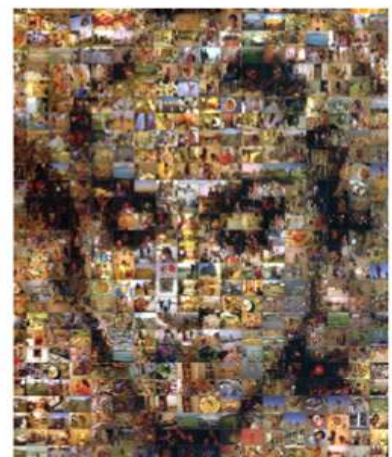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자소서+면접



[2]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1. ①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②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③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④1,000자 이내).

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 평가자는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으므로 의미 있게 읽지 않습니다.

②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 교과 성적보다 같거나 큰 개념이 학업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③ 배우고 느낀 점

- 평가자는 활동의 기록은 학생부에 나오므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궁금해 합니다. 활동위주의 나열형 글쓰기는 자소서 글쓰기의 천적입니다.

④ 1,000자 이내

- 한 문장을 80자 정도로 짧게 쓴다고 하면 12~13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2. ①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②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③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④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⑤1,500자 이내).

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 평가자는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으므로 의미 있게 읽지 않습니다.

② 교내 활동(3개 이내)

- 일반적으로 교내 활동 2~3개를 쓰지만, 요즘은 1개를 쓰는 학생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강화하기 위해 2개를 쓰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③ 배우고 느낀 점

- 평가자는 활동의 기록은 학생부에 나오므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궁금해 합니다. 활동위주의 나열형 글쓰기는 자소서 글쓰기의 천적입니다.

④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 기재가 가능합니다.

⑤ 1,500자 이내

- 대부분의 학생들이 2~3개 교내 활동을 쓰기 때문에 1,500자가 아닙니다. 1,000자 이내로 단락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교내 활동을 쓴다면, 1순위

활동은 800~1,000자, 2순위 활동은 500~700자로 개요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①학교 생활 중 ②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③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④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⑤1,000자 이내).

① 학교 생활 중

- 즉, 교내활동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②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 4개 다 써도 가능하지만 한 개나 두 개를 묶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실천한 사례

- 본인이 실천한 즉, 본인의 역할과 역량이 드러나야 합니다.

④ 배우고 느낀 점

- 평가자는 활동의 기록은 학생부에 나오므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궁금해 합니다. 활동위주의 나열형 글쓰기는 자소서 글쓰기의 천적입니다.

⑤ 1,000자 이내

- 한 문장을 80자 정도로 짧게 쓴다고 하면 12~13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4. 자율문항

① 지원 동기

② 입학 후 학업계획

③ 졸업 후 진로계획

④ 전공과 관련된 노력

⑤ 독서

⑥ 1,000자 또는 1,500자

☞ 자율문항 ①~⑤번 내용은 모두 면접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항입니다. 자율문항 4번이 가장 중요한 문항인 이유입니다.

[3] 자기소개서 문항별 인재상



☞ 대학이 뽑고 싶은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평가요소는 위 네 가지로 수렴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1번에 반드시 학업역량만 2번에 전공적합성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1번에 학업역량이 다른 평가요소보다 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한국외국어대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자기소개서 문항을 매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 평가요소와 자기소개서 문항 매칭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문항
학업역량	1, 2번
전공적합성	1, 2, 4번
인성	2, 3번
발전가능성	1, 2, 3, 4번

[4] 자기소개서 문항별 글쓰기 전략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 평가자 입장에서 서술하라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원자의 역할과 역량이 드러나게 기술한다.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할 경우 자소서의 내용을 확인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근거하여 사실만을 써야 한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하므로 스스로 솔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잘 쓴 글을 읽어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자칫 표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소서는 학생부 여행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자 학생부만으로는 맥락하기 힘든 내용을 부연 설명해주는 제2의 자료다. 평가자가 학생부에 있는 나의 역량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써야 하는 이유다. 학생부에서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내용의 부연 설명도 반드시 덧붙여야 한다. 많은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나의 역량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쓴다.

자소서는 '자기'에 대해 쓰는 글이므로 학교, 동아리, 친구를 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를 써야 한다. 또한,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적합하게 본인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대학과 모집단위의 인재상에 맞게 구체적으로 쉽고 명료하게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읽는 글이므로 맞춤법, 띄어쓰기, 논리적 구성 등 형식도 갖춰야 한다. 글을 구성할 때 주의할 점은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활동에 따른 의미와 변화 즉, 배운 점, 느낀 점, 달라진 점이 분량의 최소 30% 이상은 차지해야 한다. 평가자는 활동의 결과도 관심 있지만, 과정의 이면을 더 보고 싶어 한다. 활동과 결과는 학생부에 있으므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된다.

자소서 작성 전에는 학생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뽑아내야 한다. 본인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학업·리더십·동아리·봉사·진로 등 주제별로 분류한다. 주제별 분류가 끝난 뒤에는 개요를 짜야 한다. 예를 들어 동아리 친구들과 탐구보고서를 썼다면, 탐구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 역할과 역경 극복 과정, 결과, 의미, 새로운 변화 등 차례로 개요를 작성해 본다. 개요 작성이 마무리되면 자소서 항목별 조건에 맞게 서술하면 된다.

학종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소서를 제출 전까지 계속 교정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백 번이라도 쓰고 지우고 또 써봐야 한다. 담임교사가 교정해줄 때는 먼저 해당 학생의 학생부를 2부 출력하여 학생부의 교과활동, 교과연계활동의 강·약점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항목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부에서 추출하는 작업을 학생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소명할 내용을 자소서에 기재하면 된다. 일정이 촉박해서 급하게 작성하다 보면 글자 수를 못 맞추거나 맞춤법·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급하더라도 작성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요구하는 글자 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자소서는 지원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남과 다른 자기만의 능력과 품성이 무엇인지, 해당 분야를 공부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평가자에게 알리는 글이다.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일화를 들어 써야 한다. 교과활동과 교과연계활동의 경험이 자신

에게 미친 영향,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노력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글솜씨보다는 글의 내용, 스토리텔링, 논리력, 구성력이 중요하다. 자소서는 1, 2학년 때부터 작성해봐야 자신이 부족한 활동과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학종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소서는 구술면접과 더불어 지원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특히, 제출서류 중 유일하게 지원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교수와 입학사정관들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이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소서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학생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다. 이 때문에 자소서는 활동과 경력을 단순 나열한 '이력서(Resume)'보다는 전공에 대한 열정과 자신만의 강점이 묻어나는 '커버레터(Cover letter)'가 돼야 한다. 비록 글쓰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적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해서 즐겼던 경험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이야기로 구성해 써내려가 보자.

[공통문항 1번]

너의 학업역량을 보여줘!

자소서 공통문항 1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문항을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은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으므로 의미 있게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은 교과 성적보다 큰 개념인 학업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몰입한 활동을 기술하면 된다. '배우고 느낀 점'은 활동위주의 나열형 글쓰기가 아닌 배운 점, 느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기술하라는 뜻이다. '1,000자 이내'라는 제한 조건을 지키려면 한 문장을 80자 이내로 짧게 써야 한다는 의미다.

1번 문항은 지원자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역량을 발전시킨 사례를 묻는 문항이다. 2번, 4번 문항과 더불어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이다. 1번 문항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어는 '不狂不及(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이다. 예를 들어 '통계학'에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이 통계학에 대해 알기 위해 네이버캐스트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책을 읽는다. 유튜브, 테드, K-MOOC, KOCW 등에서 강의도 듣는다. 또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통계학 노트를 만들어 통계 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통계학 관련 전문 용어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봤다면 1번 항목에 적합한 몰입 활동을 한 것이다. 예를 더 들어보면, 생명과학 시간에 했던 DNA 관련 내용이 재미있어 책을 찾아 봤다든지, 그것과 관련하여 실험설계를 제안해서 진행했다든지 등, 관심 분야의 계기와 그 관심을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발산하였는지, 그래서 지금 관심이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등이 있으면 좋다. 이런 학생들을 평가자는 높게 평가한다. 즉,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학업역량을 발전시킨 우수한 사례인 것이다. 요컨대 1번 문항에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좋아서 몰두했던 공부경험을 쓰면 된다.

그런데 많은 학생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얼마나 올렸는지를 기재하는 오류를 범한다. 내신 성적 향상도는 학생부에 다 나와 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을 올린 과정과 공부법(학습법)에서 그치기보다는 희망 학과와의 연계성을 밝히면 좋다. 자소서 1번은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드러내는 항목이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이 공부법을 바꿔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쓴다. 예컨대 '수학 성적이 떨어져 공부법을 바꾸고 학습 플래너와 오답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교 보충수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야간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복습했더니 수학 성적이 올랐다.'라는 식의 스토리텔링이다. 물론 1번 항목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평가자가 식상해 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들이 공부법을 다 외울 정도라고 한다. 공부법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 변별하기도 어렵다. 학업역량을 드러낼 때는 자신만의 노력과 준비 그리고 차별성, 심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기와 활동을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의미, 결과, 변화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 하나의 활동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연계성이 있는 두세 개의 활동을 쓴다면 평가자가 지원자의 역량이 다각도로 볼 수 있어서 좋다.

1번 문항의 학업역량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분야에 한번 미쳐보자. 그 분야가 전공적합성까지 맞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도전과 그 문제해결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을 맛본 사람은 배움의 과정을 즐기게 된다. 지적호기심을 학업역량으로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 과정을 공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공통문항 2번]

너의 전공적합성을 보여줘!

자소서 공통문항 2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라는 내용을 1,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문항을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은 고등학교 이전의 기록은 학생부에 없으므로 의미 있게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내 활동(3개 이내)'은 일반적으로 교내 활동 2~3개를 쓰지만, 요즘은 1개를 쓰는 학생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배우고 느낀 점을 강화하기 위해 2개를 쓰는 학생이 늘고 있다. '배우고 느낀 점'은 활동의 기록은 학생부에 나오므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뜻이다. 활동위주의 나열형 글쓰기는 자소서 글쓰기의 천적인 점을 꼭 명심하자.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이 아니면 기록해도 의미 있게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1,500자 이내' 제한 조건 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2~3개 교내 활동을 쓰기 때문에 1,500자가 아니다. 1,000자 이내로 단락을 나눌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개의 교내 활동을 쓴다면, 1순위 활동은 800~1,000자, 2순위 활동은 500~700자로 개요를 잡을 수 있다.

2번 문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리더십, 탐구대회, 교과 캠프,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 활동 등에 대한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등을 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모집단위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문항으로 전공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1번 문항의 학업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다. 2번 문항 역시 학생들이 동기와 활동을 장황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활동의 단순 나열이 아닌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바뀐 점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한 활동만 열거하고 정작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쓰지 못한다. 너무 욕심내서 참여한 활동들을 자소서 안에 모두 담으려 하지 말고,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풍부하게 쓰는 편이 좋다. 즉, 2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활동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평가자가 궁금한 것은 지원자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학업역량을 키웠는지 여부다. 이 활동들이 지원한 학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전공적합성까지 높다면 금상첨화다.

이때 배운 점, 느낀 점, 바뀐 점이 지원한 학과의 역량과 연관성이 높다면 좋다. 학생들은 어떤 활동에서든 배우고 느낀다. 중요한 것은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나의 장점이면서 모집단위와 적합한지다. 또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이라면 그 활동 속에서 역량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써야 한다.

교내 활동은 시간순의 단순 나열이 아닌 강점이 있는 순서로 구체적인 사례와 에피소드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활동 안에서의 자기주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활동으로 꾸준한 지속적인 활동이면 더 좋다. 일반적으로 3개의 활동을 쓰지만 중요한 활동이 있다면 1개 또는 2개의 활동도 무난하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기계에 관련한 관심 활동, 기계공학과와 전공적합성 즉 싱크로율이 높은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 학업역량을 보인 사례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된다.

정리하면, 2번 문항에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지 말고 활동에서의 역할과 변화와 성장 내용을 서

술해야 한다. 자소서는 활동중심평가가 아니라 역량중심평가이기 때문이다. 활동 하나는 반드시 교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화학 수업에서 지적호기심이 생겼다면, 화학과 관련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식이다. 또한, 자소서 2번 문항에는 전공적합성이 잘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전공과 매칭이 잘 안 되는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활동은 '동기 - 과정 - 결과' 순으로 쓰면 된다. 그리고 '의미 - 변화' 내용을 강조하자. 한 번 따라해 보세요.

“동 - 과 - 결 ♪~♪~♪”

[공통문항 3번]

너의 사회성을 보여줘!

자소서 공통문항 3번은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1,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문항을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학교 생활 중'은 즉, 교내활동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는 4개 다 써도 되지만, 한 개나 두 개를 묶어서 쓰는 것이 좋다. '실천한 사례'는 본인의 역할과 역량을 드러내라는 뜻이다. '배우고 느낀 점'은 활동의 기록은 학생부에 나오므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뜻이다. '1,000자 이내'는 80자 이내로 짧게 써도 12~13 문장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3번 문항은 지원자의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본인이 고교 생활 중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배려, 나눔, 협력, 성실성, 리더십 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보여주는 문항이다. 4가지 영역을 나열해도 상관없고 가장 돋보이는 것 1~2가지만 써도 된다. 나눔과 배려, 협력과 갈등 관리를 묶어서 작성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1,000자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두 가지 사례보다는 한 가지 사례에 2~3가지 역할과 역량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멘토-멘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이 이 항목에 포함된다.

봉사활동은 진정성, 지속성, 자발성이 중요한 만큼 일회성 봉사활동은 안 쓰는 것이 좋다. 봉사활동은 도움을 준 사례보다는 도움을 준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변화와 성장 내용은 활동 이후의 추후연계활동으로 서술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근 초등학교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 후로도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교내에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 재능기부활동을 더욱 확장하는 식이다.

리더십[leadership]을 강조하고 싶다면 리더 경험을 쓰기보다는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와 리더의 역할을 기술해야 한다. 사실 학교에 리더는 소수고 대부분의 학생은 팔로어다. 팔로어십[followership]도 중요한 미덕이다. 리더십은 팔로어십을 통해 완성된다. 리더십 이야기가 없다면 차라리 팔로어십을 쓰는 게 낫다. 나눔과 배려를 꼭 리더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팔로어십도 배려다. 공동체의 화합과 목표를 위해 조연의 역할을 훌륭히 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리더는 1%도 안 된다.

갈등중재를 쓸 경우 자기만 선한 해결사이고 친구들은 모두 나쁘다고 쓰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본인 때문에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그 실패에서 갈등관리를 배웠다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갈등이 더 심하다고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적인 기술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성관련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갈등의 곤란도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3번 항목에서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다. 첫째, '종교지도자형' 이야기다. 3번 항목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다 착하고, 화목의 아이콘, 갈등의 중재자, 선한 해결사다. 남들을 다 기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친구들이 많다. 둘째, '교학상장(敎學相長)'형 이야기다. 내가 도움을 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다.

의사소통능력도 마찬가지다. 3번에 대부분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만 강조하는데 조직에서는 의사

소통능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설득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의사소통능력이 과연 현대사회에 맞는 역량인지 의문이다.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힘든 과정이지만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역량이 진정한 소통능력이지 않을까 싶다.

공통문항 3번에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경험, 대인관계 경험을 쓰면 된다. 지원자의 인성, 사회성을 평가하는 영역이고 소재도 한계가 있어서 크게 변별이 되지는 않는다. 웬만한 소재는 다 외울 정도다. 이 문항은 본인만이 선한 해결사이고 경청하는 소통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원자는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지만 문제 상황을 팔로어십과 합리적인 설득과 공감능력으로 극복했다고 썼다면 눈에 띄고 신선함을 준다.

요컨대, 자소서 3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교생활 내에서의 인성을 묻는 질문이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사례나, 갈등관리, 리더십 등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상 속에서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면 좋다. 즉, 지원자가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반이 합창대회에서 1등을 해서 참 기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원자의 역할이나 기여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반이 합창대회에 나가는데 곡을 선정하는 과정, 본인의 파트, 그것을 위한 본인의 노력, 결국 1등을 하는데 기여점, 1등을 성취하고 느낀 점 등이 기술되면 지원자의 인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착하다'식의 스테리오텔링이 아닌 '함께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사회성이 강조되는 스토리텔링이 핵심이다.

“착한 해결사를 포기하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활동이 더 참신하다구요!”

[자율문항 4번]

너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

자소서 자율문항 4번은 '지원동기, 전공과 관련된 노력,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독서(서울대)' 등을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문항이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은 모두 면접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항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소서 1, 2, 3번 문항은 공통이지만 4번 자율문항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4번 자율문항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제출하는 수험생이 많다.

서울대 4번 문항은 독서활동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선정 이유를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독서활동에서는 자기주도적 도서선별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빨간 거짓말, 통계>(더불어책)를 읽고 어떤 점을 느꼈다고 쓰기보다는, 메르스 관련 신문 기사를 읽은 후 통계의 오류에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읽었다고 기재하면 자기주도적 도서선별 능력이 더 돋보인다. 그 다음엔 관련 독서 이력을 확장하는 것이 좋다. <새빨간 거짓말, 통계>를 읽은 뒤 <통계의 미학>(동아시아), <괴짜 통계학>(한국경제신문사)과 같은 책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독서활동을 한 후에 대학 새내기들이 많이 보는 기초 통계학 분야 책으로 독서 이력이 점프하는 식이다. 제대로 된 독서활동을 한 지원자를 싫어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다만, 읽지 않은 책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책을 목록에 넣은 경우 면접을 통해 검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서울대 도서 3권은 전공과 관련된 교양도서와 심화도서 그리고 융·복합적 능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분야의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도서로 3권을 선별하는 것이 좋다.

지원동기는 대학과 모집단위를 선택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전공분야에 대한 학업역량과 포부가 드러나야 한다. 상투적이고 거창한 지원동기보다는 모집단위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지원한 전형에 대한 이해도 필수다. 또한, 지원동기는 대학 입학 후의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다. 거기에 대학의 인재상을 녹여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자신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대학에 입학한 후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그 후 복수전공, 연계전공, 전공세부영역, 취득 가능 자격증, 대학원 과정, 졸업 후 진로, 취업 등의 정보를 학과 누리집을 통해서 찾아 본다. 학업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한 학년별 교육과정을 나열하거나 대학생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언급하기보다는 대학 입학 후 정말 해보고 싶었던 관심 분야 공부 계획을 짜야 한다. 졸업 후 진로계획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막연한 포부가 아닌 학업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4번 문항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번 문항은 학습법을 바꿔 성적을 올린 경험을 대부분 기술한 내용이 많아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2번 문항의 교내활동도 학생부종합전형이 10년째 접어들면서 학교마다 활동들이 대동소이해졌다. 3번 문항은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거의 없다. 따라서 4번 문항을 대학에서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4번 문항은 현재의 자소서 문항으로 통일되기 전의

2014학년도 이전 1번, 3번, 4번 문항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된다. 지원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전공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주로 묻고 있어서 지원자의 포부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는 항목이어서 중상위권 대학들이 4번 문항을 앞다퉈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평가자는 4번 문항에서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을 두루 살펴보고 있으며, 대학과 모집단위에 대한 충성도도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다. 대학의 니즈(Needs)가 가장 잘 반영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진로가 변경되었다면 4번에 기술하는 것이 무난하다. 평가자는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원한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해당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앞으로 자신이 가려 하는 진로에 해당 전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만약 진로 희망이 변경되어 자신의 활동 경험과 지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평가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4번에서는 지원자의 미래비전을 드러내야 한다. 단기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 생명공학과에 입학하고 싶다는 것은 단기 목표다. 이 학과에 들어가서 앞으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가 장기적인 미래 비전이다. 그런데 이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는 '세계평화형'이다. 학생들은 지원동기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쓰지 않고 너무 거창하게 쓰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과정 나열형'이다.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형태다. 셋째는 역량 중심이 아닌 직업을 쓰는 형태다. 예를 들어 나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고 쓰기보다는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했다는 등으로 역량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10년 뒤에 없어질 수 있는 직업에 평가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4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지원동기'다 우리 대학과 학과에 지원한 동기 즉, 'Why'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전공에 미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전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런 지원동기는 어때요?

“여드름으로 고생(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함) →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바르는 약, 먹는 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음 →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 부작용으로 고생함 → 여드름 관련 신문기사, 관련 자료 수집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치료법, 임상사례 수집 → 관련 논문과 책들을 찾아 읽음 →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자신만의 치료제를 만들어 보며 자연스럽게 '화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원함”

[5]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자기소개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_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기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자율문항>

- *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율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

[6] 자기소개서 4번 자율문항

[서울]

■ 서울대

고등학교 재학 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선정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작성
- ▶ '선정 이유'는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

선정 도서		선정 이유
도 서 명		
저자/역자		
출 판 사		
도 서 명		
저자/역자		
출 판 사		
도 서 명		
저자/역자		
출 판 사		

■ 연세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500자 이내).

■ 고려대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성균관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본인의 성장환경 및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 지원동기 및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
-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인물, 책, 영화, 음악, 사진, 공연 등)

■ 서강대

지원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양대

자기소개서 없음

■ 이화여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중앙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500자 이내).

■ 경희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500자 이내).

■ 한국외국어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000자 이내).

■ 서울시립대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부·과 인재상을 고려하여 작성) 1,000자 이내.

■ 건국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500자 이내).

■ 동국대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에 대한 지원동기 및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000자 이내).

■ 홍익대

지원 동기 및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1,500자 이내).

■ 숙명여대

지원동기와 지원분야의 진로계획을 적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진로계획을 위한 노력과 준비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작성 가능합니다(1,000자 이내).

■ 광운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학과(부) 진로선택을 위한 노력 과정과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명지대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중심으로 자신의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상명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가톨릭대

해당 모집단위(학부/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숭실대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국민대

전공 지원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 분야의 진로탐색을 위해 도전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서울과학기술대

모집단위 관련 지원 동기와 진로계획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세종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진로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대학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성신여대

고교 재학기간 동안 어떤 꿈(비전)을 갖고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대학 입학 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서울여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덕성여대

지원 모집단위에 대한 노력 과정 및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동덕여대

동덕창의리더전형(인문·자연계열)/고른기회전형: 공통양식 3문항

동덕창의리더전형(미술·디자인계열/큐레이터학과 포함): 공통양식 3문항+자율문항 1문항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자신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 1개의 결과물을 첨부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단, 창의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글, 이미지, 조형물 등 분야의 제한이 없으나 입시미술 또는 교과와 관련된 외부 수상 작품은 제출할 수 없음)

■ **한성대**

한성대학교와 지원 학부에 대한 각각의 지원 동기와 대학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서경대**

자기소개서 없음

■ **삼육대**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KC대학교**

자기소개서 없음

■ **성공회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총신대**

총신대학교 지원동기와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인천·경기]

■ 인천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 인하대

희망전공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과정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청운대(인천)

자기소개서 없음

■ 가천대

지원동기와 지원분야의 진로계획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경기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단국대(죽전)

4번 자율문항 없음

■ 아주대

지원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 도전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국산업기술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국항공대

지원한 모집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진로계획, 장래 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을지대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지원동기와 진로계획을 적고, 이를 위해 고교 재학기간 동안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교내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 차의과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고, 향후 학업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강남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대진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성결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수원대

자기소개서 없음

■ 신한대

자기소개서 없음

■ 안양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용인대

자기소개서 없음

■ 중부대

자기소개서 없음

■ 평택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한경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한세대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신대

자기소개서 없음

■ 협성대

4번 자율문항 없음

[강원]

■ 강원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고,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을 기술하시오.(1,000자 이내)

■ 강릉원주대

자기소개서 없음

■ 가톨릭관동대

지원동기와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입학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경동대(Medical campus/원주 문막/자기추천제)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상지대

자기소개서 없음

■ 연세대(원주)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및 장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라대

자기소개서 없음

■ 한림대

4번 자율문항 없음

[대전·충남]

■ 충남대

자신의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건양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공주대

자신의 진로목표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 1,000자 이내).

■ 단국대(천안)

4번 자율문항 없음

■ 대전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목원대

자기소개서 없음

■ 배재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백석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세한대(당진)

자기소개서 없음

■ 순천향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선문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우송대**

학부(과) 지원동기 및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청운대(홍성)**

자기소개서 없음

■ **한국기술교육대**

해당 모집단위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포함하여 학업 또는 진로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남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한밭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한서대**

자기소개서 없음

■ **호서대**

4번 자율문항 없음

[세종·충북]

■ 충북대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 고려대(세종, 미래인재전형)

1. 해당 모집단위를 지원한 동기와 고려대학교 입학 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본인의 특기 및 역량 또는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교내 외 활동 경험 및 성취를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정고시 합격자는 원서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의 활동 경험 및 성취를 기재).

연번	활동 경험 및 성취 내용
1	(띄어쓰기·문장부호 포함 800자 이내)
2	(띄어쓰기·문장부호 포함 800자 이내)
3	(띄어쓰기·문장부호 포함 800자 이내)

3. 학교 및 기타 단체 생활 중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협력, 타인을 이끄는 리더십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건국대(글로벌, 충주)

4번 자율문항 없음

■ 서원대

자기소개서 없음

■ 중원대

자기소개서 없음

■ **청주대**

자기소개서 없음

■ **한국교원대**

지원자 본인이 우리 대학에 합격해야 하는 당위성 및 강점에 대해 여러 근거 (교직적·인성 등)를 들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국교통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U1대**

자기소개서 없음

[전북]

■ 전북대학교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군산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원광대학교

4번 자율문항 없음

■ 우석대학교

자기소개서 없음

■ 전주대학교

4번 자율문항 없음

[광주·전남·제주]

■ 전남대

자기소개서 없음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 지원한 검정고시출신자 및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공통 문항 제출

■ 조선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광주대

자기소개서 없음

■ 동신대

자기소개서 없음

■ 목포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목포해양대

자기소개서 없음

■ 세한대(영암)

자기소개서 없음

■ 초당대

자기소개서 없음

[제주]

■ 제주대

학과(전공)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대구·경북]

■ 경북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경운대(간호과)

4번 자율문항 없음

■ 금오공과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계명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대구가톨릭대

자기소개서 없음

■ 동양대

자기소개서 없음

■ 안동대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영남대

4번 자율문항 없음

[부산·울산·경남]

■ 부산대

지원학과를 선택하게 된 지원동기,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을 모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 경남대

자기소개서 없음

■ 경남과학기술대

자기소개서 없음

■ 경상대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경성대

자기소개서 없음

■ 동서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동아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동의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부경대

부경대학교의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신라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영산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울산대

일반학과 4번 자율문항 없음

의예과 4번 자율문항 있음

해당 모집단위(의예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인제대

자기소개서 없음

■ 창원대

지원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국해양대

해당 학과를 선택하게 된 지원동기를 기술하고, 입학 후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지역 거점 국립대학]

■ 강원대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고,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을 기술하시오.(1,000자 이내)

■ 충남대

자신의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충북대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 전북대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전남대

자기소개서 없음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 지원한 검정고시출신자 및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공통 문항 제출

■ 제주대

학과(전공)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경북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영농창업인재전형 지원자: 영농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 경상대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부산대

지원학과를 선택하게 된 지원동기,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을 모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교육대학]

■ 서울교대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500자 이내).

■ 경인교대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 춘천교대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 공주교대

공주교육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청주교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전주교대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 광주교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대구교대

4번 자율문항 없음

■ 진주교대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

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 **부산교대**

예비 초등교사가 되는데 있어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하고, 교직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재능을 실천 사례와 더불어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보완할 약점도 함께 기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 **제주대 초등교육학과**

학과(전공)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

지원자 본인이 우리 대학에 합격해야 하는 당위성 및 강점에 대해 여러 근거 (교직적·인성 등)를 들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4번 자율문항 없음

[이공계 특성화 대학]

■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작성하고, 본인은 어떤 과학 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DGIST에 자신을 소개하여 주십시오(띄어쓰기 포함 3,000자 이내).

※ 아래의 주제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 기술

- DGIST 지원 동기 혹은 향후 계획(학업, 진로, 꿈 등)
-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체험 활동이나 경험
- 미래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본인의 자질
- 자신의 도전적 호기심이나 창의적 호기심에 대한 기술
- 자신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열정에 대한 기술
- 협력과 나눔의 리더십에 대한 기술

■ 울산과학기술원[UNIST]

UNIST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들었던 노력, 열정, 끈기 등에 대해서 활동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포항공과대(POSTECH)

자신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POSTECH 지원동기, 재능 및 특기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 고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예 >>

- KAIST 지원동기 또는 이유
-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경험
- 지원자의 환경(가정, 학교 등)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나 역경극복 사례 등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독법 ①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교생활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학종의 핵심 평가요소인 학생부에는 총 10개의 항목이 있다. 대학의 평가자는 '4년 수상경력, 6년 진로희망사항, 7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8년 교과학습발달상황, 9년 독서활동상황, 10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중요하게 해석하고 평가한다. 1년 인적사항은 대학의 평가자(교수, 입학사정관)에게 제공되지 않고, 5년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특성화고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학생부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① 인적사항 = 인적사항의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해 입력한다. '가족사항'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500자)'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인적사항에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입력하고 가족사항과 특기사항은 삭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반면, 부모의 사망, 별

거, 주소누가기록, 특기사항 등은 평가자들이 평가자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보완 자료가 되므로 제공해야 된다는 반론도 있다.

② 학적사항 = 학적사항의 '특기사항(500자)'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수상경력은 양보다 질...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기재 가능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때는 학교 내 삭제 주체를 분명히 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

학적사항은 학교별 지역을 비교해 보는 참고자료일 뿐 학종의 평가에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간 학생,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간 학생 파악이 가능하고, 전학 사유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③ 출결상황 = 출결상황은 근면성과 성실성을 파악하는 항목이다.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해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출결상황에는 무단 결석·지각·

조퇴·결과가 없을수록 좋다. 무단근태의 경우에는 '특기사항(500자)'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자소서·추천서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평가자들이 질병 근태의 경우도 꼼꼼히 보기 시작했고 면접에서 확인하므로 작위적인 질병 결석은 안 하는 것이 좋다.

④ 수상경력 = 수상경력 항목에는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수상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지만 양보다는 질이다. 수상 횟수나 등위가 정량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수상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동기 - 과정 - 결과 - 의미 - 변화'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학종이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지원한 모집단위와 전공적합성이 높은 수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다.

다만, 교내상 숫자를 늘리는 유형(예: 국어 교내 경시대회를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으로 다시 세분해 수상하는 경우), 우수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유형은 대학에서 의미있게 평가하지 않는다.

수상경력을 다른 항목에 입력해 대학에 보낸 경우에도 대학이 어떤 제재를 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다. 대학들의 학생부 작성 매뉴얼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지만 고등학교의 자정 능력이 선행돼야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기재 가능한 글자수를 줄이고 제한조건을 늘리는 것이 학종의 취지에 맞는지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독법 ②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교생활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학종의 핵심 평가요소인 학생부에는 총 10개 항목이 있다. 대학의 평가자는 '4년 수상경력, 6년 진로희망사항, 7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8년 교과학습발달상황, 9년 독서활동상황, 10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1번 인적사항은 대학의 평가자(교수, 입학사정관)에게 제공되지 않고, 5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특성화고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학생부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⑥ 진로희망사항 = 6년 진로희망사유가 개선됐다.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학부'란 삭제는 2017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 2018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1~2학년, 2019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진로희망'은 학생의 진로설계 및 변경 등을 고려해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기재하고, '희망사유'에는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진로희망 사유를 기재한다.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해 파악한 학생의 진로 희망과 희망 사유를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단, 담임교사의 진로교육 담당자의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받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기 또는 흥미'는 특정 사물의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입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용어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입력한다. '진로희망'은 희망 분야나 희망직업을 입력한다.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

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기록한다. 다만, '희망사유(200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에 넣어도 부방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로희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다. 예컨대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의사-외과의사-흉부외과의사'

진로 희망이 변경된 경우 타당한 사유 설득력 있게 기록 학생의 진정성 중요 평가항목

처럼 작성하면 된다. 'CEO'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CEO'처럼 수식어를 붙여주면 구체화할 수 있다.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진로희망을 역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 진로희망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진로희망이 변경된 경우 변화하게 된 과정 혹은 타당한 사유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설득력 있게 기록하면 된다.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와 추천서 활용도 가능하다. 평가자는 진로희망의 일관성 못지않게 변화과정의 타당성과 학생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또한, 많은 대학이 자소서 4번 자율문항을 통해 지원 동기를 확인하는데 진로희망사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동기와 관련한 4번 문항이 없는 대학도 있어서 진로희망 사유 내용을 잘 기록해 활용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진로희망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하기 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생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고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활동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 대학의 평가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다.

1) 자율활동

'자율활동(1000자)'은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증시하는 활동이다. 크게 학급활동, 학년활동, 학교활동으로 구분한다.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첨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18학년도 기재요령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은 '자차·적응활동'과 '창의주제활동'으로 영역별 활동내용을 나눠 제시했다. 자차·적응활동에는 협의활동(학급회의, 전교회,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역할분담활동(1인 1역 등), 진목활동(교수활동, 사제동행활동 등), 상담활동(교수 관계 상담, 또래 상담활동 등)이 있다. 창의주제활동에는 음악, 미술, 연극영화활동이 있다.

대학의 평가자는 전교 학생회장, 학급 회장 같은 임원활동 경험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 작다고 생각되는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내용, 그리고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구체적 역할과 활동과정, 느낀 점을 자소서에 연계해 작성하는 것도 개별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 방법이다. 자율활동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활동할지 고민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독법 ③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2.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와 같은 취미, 특기, 재능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내는 집단 활동이다. 기록의 주체는 동아리 담당교사다.

자율동아리는 대입과 연계돼 과도한 스펀드 쌓기 및 고액 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사의 관찰이 어려워 발생하는 과장·부풀리기 기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자율동아리활동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개선안이 나왔다. 반면, 자율동아리아말로 지원자의 자기주도성과 전공적합성을 잘 살펴볼 수 항목인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생들 희망대로 정규동아리를 모두 배정할 수 없는 학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동아리는 지원할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좋지만, 굳이 대학의 전공과 고교생활의 동아리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전공과 관련한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즉, 전공적합성을 위해 역지로 만들어낸 동아리보다는 전공 관련 교과 공부 동아리가 더 학생답다.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정규 동아리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 기재 가능한 특기사항 글자 수가 적으므로 전공적합성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동아리 담당 교사는 500자 안에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활동 모두를 기록해야 하므로 특기사항을 적절히 배분해 쓰는 것이 좋다. 기록할 내용이 많다면 자율동아리활동을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교마다 동아리활동에 집중하다 보니 전국의 고등학교 동아리 내용이 비슷해졌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의 결과물, 역할, 기여도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변별력이 낮다. 적은 분량이라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놓을 것을 권한다.

3년 동안 하나의 동아리를 꾸준히 하게 한 것이 반드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 학생의 관심 분야와 동아리활동을 통

전공 관련 역량에 초점 지속·진정성이 중요 학생 결과물·역할·기여도 변별력 있게 기재해야

한 성장과 발전 모습이다.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했는지보다 동아리를 선택한 이유와 동아리 내에서 어떤 경험과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3.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하고,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한다는 개편 시안이 얼마 전 나왔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간소화함에 따라 대학들이 응시생을 평가할 기초자료가 무실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적

인 특기사항 내용 없이 정량적인 봉사활동 실적만을 평가하는 것은 종합전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봉사활동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봉사시간의 총량이다. 예전에는 봉사시간의 양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양보다는 질이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양적으로 시간을 늘리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원자 본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지가 중요하다. 즉, 일회성 봉사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3학년 때도 봉사활동은 계속해야 한다.

특기사항(500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해 입력하되, 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재하면 된다. 즉, 학생은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담당 교사는 특기사항에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수시모집 봉사활동의 핵심이다.

봉사활동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개인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교외봉사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활동일지라도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충실히 임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 내용이 꼭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범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꼭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본인의 역할과 노력, 배우고 느낀 점을 상세히 쓰지 않으면 정성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우리 모두의 자소서로 읽히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독법 ④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4.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세무영역으로 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이 있다.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진로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제공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부분이다. 지원자의 관심 영역, 진로 탐색 과정, 자기주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학생부의 다른 영역과 연계돼 평가되는 사항으로 진로를 확고히 설정해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탐색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평가자는 구체적 진로활동 사례와 더불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등 학생부 곳곳에 기재된 지원자의 진로와 관련된 기술 내용, 자소서와 추천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자의 모습을 구체화해 이해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 진로활동의 핵심이다.

평가자는 지원자가 진로를 바꿨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변경 사유만 학생부 7번 정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구체

적인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진로와 관련된 '독서'와 '자율동아리'를 넣는 것도 특기사항(1000자)을 알뜰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⑧ 교과학습발달상황 = 2018학년도부터 학생부 독서활동상황에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적고, 소논문은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과제 연구만 적어야 한다. 연구 과제명, 참가 인원, 소요 시간만 기록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은 강좌명(주요 내용)과 이수

학생부기재 내용 제한...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주목 학생의 개별적 특성 강조해야 '3인칭 관찰자 시점' 기술 유리

시간만을 적어야 한다. 2017학년도부터 교내상은 학생부 수상 경력에만 적고, 다른 항목에는 적을 수 없다. 이렇듯 학생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이 주목받고 있다.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교과 성적'과 '세특'으로 구분한다. 특히, 학교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시간에 대해 기록한 것이 세특이며 이러한 이유로 중요도가 높아졌다. 세특은 수업시간에 드러난 학생의 역량을 '개별화' '구체화'해서 기술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학생의 역량이 잘 드러나게 사실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

올해부터 독서활동 칸에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적어야 하

로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세특에 기재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지원하는 모집단위·진로와 연계한 세특이라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수업 내용의 단순 나열, 다른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 기술, 추상적 기술 등은 지양해야 한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세특은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영역이지만, 교과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의 내용을 작성해줘야 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세특의 구체적인 입력범위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 대해 입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이 공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업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 수업시간 내 토론, 모둠활동, 주도적 발표 등을 학업역량, 전공적합성과 연결 지을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각 과목 세특을 확인해야 한다. 세특은 수업시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서술형 평가다. 교사가 쓰는 내용인 만큼 그 기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기록의 주체인 교사는 수업내용 위주의 서술보다는 학생이 참여한 활동 위주로 작성하면 좋다. 세특에는 학교가 아닌 학생이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식의 기술은 자칫 누가 작성했는지, 일명 '셀프 학생부' 오해를 살 수 있다. 학생이 참여한 교과활동과 교과연계활동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술하는 것이 낫다. 지나치게 몰입하는 순간 객관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세특에는 학생이 드러나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자기생활기록부'가 돼야 학생이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독법 ⑤·끝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



⑨ 독서활동상황 = 2017년부터 학생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적기 때문에 독서가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독서역량은 학생부 다른 영역과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평가자는 지원자의 독서역량을 통해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담임교사가 입력하는 공통부분은 500자, 과목별 교사가 입력하는 부분은 250자 이내로 입력한다.

독서활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독서기록장에 읽었던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해두면 면접 준비할 때 유용하다. 과목별 독서기록이 부족하면 공통란을 활용하면 좋다. 수업과 연계한 독서활동은 8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진로와 연계한 독서활동은 7번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독서활동상황에 베스트셀러와 혼란 책들만 기록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베스트셀러를 읽는 학생이 베스트셀러마저 읽지 않는 학생보다 낫다는 평범한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대학에서 독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난센스다.

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부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항목이다.

평가자들은 학생의 총체적 역량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년당 1000자)'을 주목해 읽는다. 지원자의 총체적 변화와 성장 기록을 요약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특정주제 지속적 관심을 내용 등 정리해두면 면접에도 학생부, 성장 중심으로 기록하고 개별화, 구체화 드러나게 기재

평가자가 종합의견만 읽고도 충분히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교사 추천서와 자소서 받지 않고 학생부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더욱더 신경 써서 기록해야 한다. 화려한 스펙이나 활동의 나열보다는, 학생이 '개별화' '구체화'돼 드러나야 한다.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기재할 것을 권한다. 학생부 전체 항목이 제시하는 학생 개인에 대한 총체적 정보가 종합의견에 기록되는 것이 핵심이다.

■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독법을 마치며 =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만 준비하면 학종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한다. 비교과만 잘해서는 대학에 갈 수 없다.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활동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성실한 학습태도, 주도적인 과제 이행,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학습 경험 등이 기록돼야 한다. 이런 요소들은 대학의 평가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학종 합격의 핵심은 교과 성적, 즉 '내신'이다.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의 내신시험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한다. 학종에서 평가자는 내신을 통해 지원자의 학교생활 성실도, 진로에 대한 관심, 학업 역량을 파악한다. 학종 합격의 완관을 쓰려면, 10번의 내신 시험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종이 생긴 이후 학생부 기록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을 토로하고 있다. 평가의 황금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나치게 몰입하는 순간 객관성을 잃게 되고, 대상에서 너무 멀어지면 감정이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평가자 역시 학교마다 기재 형식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기록의 틀을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학종의 학교·교사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학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면 학생부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끝으로,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학종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